



나날이 성장하는 UAE 외식시장

두바이지사

두바이 내 식당과 카페 수 역대 최대

- 두바이 경제개발부(DED)의 BRL(Business Registration & Licensing)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두바이에 등록된 식당 및 카페 수는 총 11,813개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신규 개장한 매장 수도 식당 641개, 카페 468개로 2017년의 601개와 410개보다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UAE 인구증가,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여건 개선 등을 증가요인으로 꼽고 있다.
- UAE 인구는 2004년부터 꾸준하고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19년 현재 인구는 940만 명으로 2004년 대비 약 130% 증가했으며, 신규 유입인구는 대부분 해외 파견 주재원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로 고소득자 비율이 높고 외식 소비경향이 뚜렷해 외식시장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두바이는 중동 경제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 첨단시설 및 식품사업을 위한 다양한 부지 보유 등 외식산업 성장에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가 적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수월한 편이다. DED의 보고서에 따르면 두바이에서 외식 매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Bur Dubai로 총 7,312개의 외식매장이 있다.

UAE 외식 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맑음’

- UAE 외식 산업의 전망을 밝히는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관광업의 성장이다. 일반적으로 UAE는 물가가 높고 호화스러운 여행지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관광객들 또한 UAE에서의 소비에 인색하지 않으며, 이는 외식부문에 서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만큼, 그들의 기호와 취향을 저격하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외식업체들이 많으며, 가격하락으로 진입장벽 또한 낮아지고 있어 UAE의 외식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전망이다.
- UAE의 외식시장은 다양한 세계음식을 수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아시안 푸드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한류문화의 인기로 한식이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 원재료를 사용한 순수 한국음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편이 아니다. 외식산업 전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국음식과 식재료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한식 및 한국 식재료 홍보와 수출 증진에 주력할 때인 것 같다.